신발업계 패션과 기술 조합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가을 스크린 '남자들의 변신'

내일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7일 개막식이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관계자들이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되살이' 집 전화… 통신사 공들인다

치솟는 통신비 부담, 스마트폰 부작용 드러나자 무제한 이용 요금제 등 서비스 강화 홍보전 치열

그동안 휴대전화 경쟁에 치우쳤던 통신업계가 집전화 서비스 강화로 눈을 돌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계통신비 부담에다 스마트폰 전자파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집 전화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집전화로 망내외 유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망내 무한자유-100, 유선 무한자유, 유무선 무한자유, 휴보이 망내무한자유, 휴보이 유무선 무한자유 등 총 6종의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번 요금제는 유무선을 망라한 LG유플러스 가입자 간 음성통화는 물론 타 이동통신사와의 음성통화도 요금제별로 무제한 제공한다.

특히 유무선 무한자유 요금제는 월 2만9000원에 망내외 모든 통화를 무제한급으로 제공한다. 유무선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타 통신사 가입자와도 요금부담 없이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월 유선 집전화 신규 이용 시 월 2000원으로 자사 고객 간은 무제한, 타사 가입자와는 월 최대 5000분을 무료 통화할 수 있는 '집전화 무제한' 상품을 내놨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매일 시내·외 각 15분씩 30분 동안 집전화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46만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KT 역시 지난 6월 유선통화와 KT 휴대전화 가입자와의 통화까지 무제한 제공하는 '올레 집전화 무한요금제'를 출시했다.

KT가 선보인 '올레 집전화 무한요금제'는 '홈무한 3000'과 '소호무한 3000' 2종이다. 홈무한 3000은 통신사 구분없이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 간 무한 통화를 지원한다. 소호무한 3000은 여기에 KT 휴대전화 가입자와의 통화까지 무제한 지원한다.

이 요금제 가입 시 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거는 요금(14.5원/10초)을 감안하면 월 최대 26만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강국현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올레 집전화 무한요금제'는 고객의 통신비 절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라며 "앞으로 고객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 집전화가 대안될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유무선 전화서비스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집전화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가구는 2011년 21.63%, 2012년 27.02%, 2013년 32.63%로 매년 늘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집전화 없이 휴대전화만 이용하는 개인은 2011년 17.33%에서 2012년 18.29%, 2013년 23.17%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처럼 휴대전화 이용률이 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마트폰 중독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경 사용이 늘어난 점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요금은 기존 집전화나 피처폰에 비해 현저히 비싼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마저 10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전체적인 휴대전화 사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실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 또한 커 사회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집전화 서비스 강화에 나서는 통신업계의 최근 모습이 휴대전화 부작용의 대안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재영기자 lyd403@metroseoul.co.kr

우유로 암 치료 가능?

서울우유·서울대, '형질 전환 소' 첫 생산

암치료가 가능한 우유가 대량 생산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우유 생명공학연구소와 서울대 수의대는 유전자 주입에 따른 소의 형질 전환 여부를 형광물질로 알 수 있는 '형질 전환 형광 소' 생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질 전환이란 외부에서 유전자를 주입해 생명체의 형질이 변하는 현상. 사람에게 필요한 유전자를 형질 전환 형광 소에 넣어 우유로 생산하면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로 태어난 소는 녹색 형광 단백질을 갖고 있어 녹색 빛을 낸다. 하지만 이 소에 제조한 단백질을 주입하면 주둥이와 발굽 등 신체 부위가 적색으로 바뀐다.

즉 이를 응용하면 바이오 신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를 쉽게 산입할 수 있으며 형질 전환을 확인하면 다량 생산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중 항암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인터루킨 등 유용 단백질을 분비하는 형질 전환 소를 생산할 것으로 일려졌다.

장긴홍 서울우유 생명공학 연구소장은 "형질 전환 소 연구에 집중해 사람에게 유익한 유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한편 바이오 신약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nul369

"책임감 짊어지고 가겠다"

박영선 탈당 철회… "심려 끼쳐 송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

자신의 사퇴론을 두고 탈당 여부 등 거취를 고민하면서 칩거한지 나흘만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무 복귀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 혁신해 보고자 호소했지만 한계에 부딪히면서 저 또한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다"며 "어떤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할지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아울러 중차대한 시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당원과 선후배 동료 의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놓으며 드리는 애정 어린 호소"라며 "그동안 저의 잘못에 분노한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시라. 그 돌을 제가 맞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8일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인선할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후보가 의원총회 등의 추인 절차를 통과하면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문희상·이석현·박병석·유인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 한국측 대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미국측 대표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KB 막장극, 캐스팅이 문제

기자 수첩

백아란 <금융시장부 기자>

템플스테이 각방 싸움, 물고 늘어지는 고소장, 밀고 버티는 사람들. 최근 금융가에서 한창 인기몰이 중인 'KB막장극'의 소재들이다.

'주전산기 교체'로 시작된 사건은 행장과 회장의 권력다툼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당국과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초점이 바뀌었다.

극본 없는 시나리오는 KB집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관객들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캐스팅을 문제삼았다.

퇴직 관료 등 관피아(관료+마피아)나 정권 실세 주변 인물이 각각 다른 낙하산을 타고 내려옴에 따라 금융 권력 다툼과 경영 혼란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임영록 KB금융회장은 정통 모피아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차관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KB로 왔다.

이에 반해 금융연구원에 몸담았던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측의 지지로 행장에 올랐다.

물론 KB금융 회장은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뽑지만 추천 기준이나 선정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정부 입김에 따라 인사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낙하산 인사의 병폐'가 KB금융에 한정된 것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관행이라는 점이다.

사회 전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내 줄서기 문화와 세력다툼이 그 증거로, 끊임없이 왜곡된 조직문화가 양산되고 있는 것.

결국 CEO 선임 절차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제2의 KB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KB막장극'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극의 분수령에는 이사회 역할의 재정립과 경영 일관성을 기반으로 한 지배구조 구축이 담겨야 한다.

이재오 쓴소리에 굳은 표정 짓는 새누리 지도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중진의원이 전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거론, "회동을 보면서 느낀 건 정국이 꼬이면 집권당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꼬이면 야당이 풀어야 하고, 야당이 꼬이면 청와대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진의원의 쓴소리에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비상 시나리오 카드 꺼내서라도 민생법 처리"

김무성 "국회 정상 가동 만반의 준비… 野 동참 호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에 집중하라는 게 민심의 방향"이라며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민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6일 당정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법안 심의, 국감 준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계속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비가 아깝다는 목소리가 나올만큼 국회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회가 민생이라는 목표 하에 이런(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늘부터 정상화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불이 꺼지지않는 국회가 되게 분발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미국인 남성 1명 월북 시도하다 붙잡혀

미국 국적의 한 남성이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월북을 시도하다가 우리 군 초병에 붙잡혔다.

17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어제 오후 11시55분께 김포 지역에서 어떤 미국인 남성 1명이 한강을 헤엄쳐 월북을 시도하다가 해병대 매복조에 체포됐다"며 "현재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에서 월북 시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체포된 후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가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미국인 남성이 조류를 따라 북쪽으로 헤엄치다가 지쳐서 감시 지역에 엎드려 있는 것을 해병 매복조가 발견한 것으로 안다"며 "김포 지역에서 미국인이 월북을 시도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박 대통령, 내일 모리 전 일본 총리 면담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방한하는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와 면담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7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모리 전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기도 한 모리 전 총리는 19일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추궈훙 중국 대사 "김정은 방중 실현될 것"

●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대사는 이날 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고우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중-북 간에는 줄곧 정상적인 양자 관계가 유지돼 왔고 이전에도 양국 지도자간의 정상적 왕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 서울평화상에 '과거사 사죄' 메르켈 총리

● 제 12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선정됐다.

서울평화상심사위원회는 과거사 사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각성시키면서 전쟁의 폐해와 국제 평화를 부각시킨 메르켈 총리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상식은 메르켈 총리의 방한 계기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낸 만큼 받게'

연금학회 22일 개혁안 발표… 재직자 부담금 50% 수준 인상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박근혜와 박영선, 여성 정치인의 한계

여의도 제트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 불리며 큰 기대를 했던 박영선 의원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고 박순천 민주당 당수 이후 여성 정치인으로 야당 당대표 역할을 맡은 건 박 의원이 유일하다. 최초의 여성 법사위원장, 두 번째 비(非)법조인 법사위원장이라는 기록도 보유한 그였다.

이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조를 이뤄 존재감이 커졌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사령탑으로 각각 비교되는 영광(?)까지 짧게 누렸다. 일각에선 박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스스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욕심이 지나쳤다고 말한다. 의욕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이끌었는데 두 차례나 비토당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이 좌절되며 '삼진아웃'됐다는 평가다.

그가 늘 강조하던 '철통 보안'에 스스로 발목 잡혔단 비판도 있다. 기자 출신으로 정치인들에게 정보를 캐냈던 그는 역설적으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보좌진을 색출하려며 정보 유출을 막았다. 대표실 문에 추가 칸막이를 설치하고 내부 회의에 도청 장치나 녹음기 설치 우려가 있다며 회의를 모두 복도에 내놓기도 했다. 의심이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감정 정치' '여성 정치의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원내대표직과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상의 대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박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적잖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 중 눈물을 보이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며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다. 비공개 회의 등에서 그런 장면이 여러번 연출됐지만 당 안팎에선 쉬쉬했다.

이같은 부정적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됐다.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닮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거슬리는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면에서 여성 정치인의 한계라고까지 폄하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옥선 전 의원이 남장까지 하고 다니며 남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활동했던 점과 비교도 됐다. 김 전 의원의 남장이 한국 정치계에서 먹혔던 것이 우연이 아니란 얘기다.

만약 박 대통령까지 실패한 정치인으로 남는다면 우리 사회에 여성 정치의 입지는 더 좁아진다. 박 의원이 개인적 감정을 추스르고 진보 성향 여성 정치인의 대표란 생각을 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장없는 배가 됐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위원장직을 '독배'라 표현했다. 7·30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본인에게 떠넘겨진 상황을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고 말했다. 다음 차례로 독배를 마실 정치인이 누가 될지가 현재 여의도의 가장 큰 관심사다.

/조현정기자

첫 여성 포병장교 사격 지시 육군은 "여군 포병장교 9명이 현재 전방 사단 포병연대와 예하 군단 포병여단에서 사격지휘 장교, 작전 장교, 정보 과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공 장교 2명은 7군단 방공대대와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에서 각각 복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첫 여성 포병장교인 홍지혜(23) 소위가 17일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6사단 포병대대에서 105㎜ 곡사포 사격지시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 여군중위 자살 당시 대대장 기소

육군은 4년 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서 여군 장교가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해 대대장 A모 소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A 소령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16일 유족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A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A 소령이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A 소령은 그러나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의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심 중위는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맨 숨진 채 발견됐다.

/윤다혜기자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 사칭 위조수표 사기범 일당 적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를 사칭하며 위조수표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 행사와 사기 혐의로 정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등은 4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위조된 자기앞수표 3200장을 이용해 수표를 유통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속여 '이를 현금화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윤다혜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물의 빚어 죄송"… 가족대책위 임원 전원 사퇴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대리운전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 이씨는 "대리 운전 대기 시간이 길어져 유가족과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 국회의원과 말싸움이 붙었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국회의원을 무시하느냐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유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김씨 등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씨 등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유가 어찌 됐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관련자를 모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이 연대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며 총무팀 및 각 분과 간사는 업무 승계를 위해 유임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ydh@

기내 승무원 폭행 남성 집유

대전지법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뒤 기내에서 정해진 좌석에 앉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다.

이에 승무원이 좌석에 앉을 것을 권유하자 A씨는 "왜 깨우냐,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승무원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윤다혜기자

여행객-시민단체 '착한 사이트'

metro France

프랑스에서 시민단체와 관광객을 연결하는 여행 웹사이트가 공개됐다.

남프랑스 니스에서는 여성 알릭스는 '글로브 드롭'이라는 이름의 여행 사이트를 만들었다. 여행객들과 시민단체를 직접 연결해주는 이 사이트는 세계의 모든 도시를 무대로 한다.

평소 여행을 사랑한 알릭스는 비정부기구(NGO)와 각종 구호단체가 여행과 접합된 형태를 구상해왔다. 이 사이트는 그가 꿈꿨던 연대적 여행을 실현하는 곳이기도 하다.

글로브 드롭 사이트에서 원하는 도시를 선택하면 그에 적합한 바캉스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도시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각종 단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여행을 하면서 지역내 구호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도 엿어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모든 여행객들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마음에 드는 단체가 있을 경우 '기부금'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리아 라퀴 기자·정리=정주희 인턴기자

1만㎡ 벽면 초대형 그라피티

metro Russia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시의 한 공장에 초대형 그라피티가 등장했다. 1만㎡ 벽면에 그려진 이 작품은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작품은 여러 그라피티 화가들이 함께 그렸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화가 일리아 드루지닌은 "400명이 같이 작업을 했다"면서 "벽면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크레인을 타고 옮겨 다니며 그림을 그릴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화가들이 각 구역을 책정받아 그림을 그렸다"며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종이에 그리는 것과는 다르다. 더 넓은 공간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가자지구서 박격포탄"

이스라엘군 휴전 이후 처음 주장… 하마스는 부인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포격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피터 러너 중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같이 말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가자지구에서 박격포탄이 날아왔다는 주장이다.

포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무기한 휴전이 이뤄진 지 21일 만이다. 양측은 지난달 26일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포탄은 가자지구와의 접경 에시콜 지역에 떨어졌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하마스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박격포가 발사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팔레스타인 정파는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정을 지키고 있으며 협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7월8일부터 50일의 전쟁을 치렀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2143명, 이스라엘인 7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달 중순 이집트 카이로에서 장기 평화협상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로버트 세리 유엔 중동특사는 유엔의 중재로 양측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건축자재 반입 허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오바마 보고 있나"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16일(현지시간) 한 반전 시위가가 이라크전 지원을 중단하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인구 9분의 1 굶주려 북한 주민 37% 영양실조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930만 명이 굶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계획(WFP)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14 세계 식량 불안 상황(SOFI)'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4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530만 명이다. 이는 10년 전 보다 1억 명 가량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인구의 9분의 1이 굶주리고 있다. 북한의 경우 1990~1992년 조사 당시 480만 명이던 기아 인구가 2009~2011년 102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2~2014년 조사에서 북한의 기아 인구는 930만 명이었다.

/조선미기자

"연금 50만원, 5억 모아둔 효과"

노후 준비 당장 시작해야… 개인연금 유리

금융가 사람들

•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인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현실화 됐다. 2005년 961명이었던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770명을 거쳐 올해 1만459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1904년 이전, 심지어 두 세기 전인 180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확률에 비춰볼 때 현재 30대인 4명 중 3명은 100세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과 취업, 노후를 각각 30-30-20으로 나누던 기존의 생애주기가 30-30-40으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취업기간 30년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년을 벌어 50년 혹은 그 이상을 먹고 살아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후 준비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기출(사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늦었다고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노후 준비를 삐뚫게 하라는 생각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은퇴 이후 닥칠 수 있는 경제적 궁핍은 재테크 투자 등 거창하게 접근할 것 없이 개인연금 가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연금에는 가능한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적은 금액을 넣는 것도 무방하다. 10만원이라도 일단 시작한 뒤 얼마든지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여유가 있을 때를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는 수가 있다.

박 소장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면서 "젊은 사람들 중 일부 60세 넘어서 받는 50만원이 지금의 50만원과 가치가 같을 리 없다는 이유로 노후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예금금리가 1%대인 상황에서 매달 50만원씩만 받더라도 은행에 5억원 이상 예치해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만큼 개인연금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에 납입해야 하는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

답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역산해 구할 수 있다. 예컨대 노후 생활비로 200만원을 원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80만원을 받게 된다면 120만원은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박 소장은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향후 120만원을 받기 위해 지금 얼마를 부어야 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노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거래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담당 FC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확보한 뒤에는 재테크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휴먼 캐피탈 투자도 고려하는 것도 100세 쇼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적은 내일부터 하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SKT AG주경기장에 기업홍보관 개관 SK텔레콤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비추운광장에 기업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홍보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SKT 제공

화학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한화케미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한화케미칼(대표 방한홍)이 화학회사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임직원이 멘토가 돼 대학생 멘티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상생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화케미칼은 최근 온라인 멘토링 카페(http://cafe.naver.com/hanwhamentor)를 개설했다.

엔지니어, 연구, 영업, 인사, 기획 등 각 부문 22명의 멘토가 카페에 올린 멘티들의 질문에 수시로 답하는 형식으로, 월 1회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 1회 CEO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멘티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또 회사에 관한 궁금증은 물론 직장생활이나 경력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한화케미칼이 소통을 강화하는 이유는 B2B 기업인 화학회사 특성상 대중적으로 친숙하지 않고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김승은기자 [illegibl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식 부호 4위

삼성SDS 상장하면 3조6000억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내 4위 부호로 등극할 전망이다.

오는 11월 삼성SDS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가운데 이 부회장의 총 주식자산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말께 아버지(이건희 회장)와 아들이 주식 자산 부호 순위 톱5에 나란히 랭크될 예정이다.

부자가 부호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정몽구(2위) 현대차회장과 정의선(4위) 현대차 부회장이 유일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외주식거래 시스템인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삼성SDS의 가치를 포함한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자산은 전날 기준 3조598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상장 주식 자산 1조135억원에 삼성SDS 지분 11.25%의 가치 2조5852억원을 더한 것이다.

삼성SDS 주가는 전날 K-OTC시장에서 29만7000원에 마감됐다. 장외시장 주가는 상장 계획 발표 때보다 2배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주식 자산 순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6위·3조4196억원)을 추월하게 되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3조4566억원)을 바짝 추격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12월 상장 예정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가치를 추가하면 이 부회장의 주식 자산은 더욱 늘어나 정 부회장을 제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5.1%를 가지고 있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62.51 (+19.68)	574.58 (+2.62)	2.37 (변동 없음)	1035.00 (↓1.20)

3조 한전 부지 응찰 1대 3의 대결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3사 입찰 18일 오전 10시 결과 공개하기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놓고 대결한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부지 입찰 절차를 17일 마무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온비드(onbid.co.kr)에서 진행된 부지 입찰은 이날 오후 4시 마감됐다.

입찰 결과는 18일 오전 10시 가격 등을 비교하는 '개찰'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공개된다.

한전은 입찰 참가 업체들을 공개하지 않지만 인수에 뛰어든 기업들이 먼저 이 사실을 공개해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의 2파전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한전이 부지 입찰에 들어가자 일찌감치 인수 의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전 부지의 새 주인이 되겠다는 각오다.

현대차그룹의 입찰 경쟁자로 잠정 지목된 삼성그룹은 17일 전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그룹 차원이 아닌 삼성전자 단독으로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한전 부지 입찰에 참여했다. 상세한 내용은 18일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내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찰 마감 직전에 온라인으로 금액을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번 인수전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그룹 주요 계열사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삼성전자 홀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결국 한전 부지 인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의 3개사가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1대 3의 대결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주요 계열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밝힌 마당에 삼성그룹이 굳이 같은 방식으로 맞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나 삼성전자 만으로도 충분히 현대차그룹의 빅3 계열사에 맞설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부지는 감정가만 3조3000여억원에 이르는 강남의 요지다. 개발에서 최종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10조원이 넘는 큰 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성호기자 csh@metroseoul.co.kr

취업 시즌 남성정장 대전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행사장에서 열린 취업준비생을 위한 남성정장 대전 행사를 찾은 한 남성이 정장을 고르고 있다. 21일까지 계속되는 행사에서 이월상품의 경우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된다. /연합뉴스

미수령 로또 당첨금 2000억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 규모가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2078억554만원에 달했다.

5등 당첨금 미수령액은 5년간 1301억8825만원으로 전체 미수령액의 62.7%에 달했다. 5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5년간 2603만9000여명이었다.

등수별로 보면 당첨금이 5000원으로 고정된 5등 당첨금의 미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송주원기자

"취업 생각"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4년 베이비부머 일자리플러스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현장면접참가기의 채용공고안내문을 보는 가운데 한 참가자가 이력서 사진을 찍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입 땐 분할수령 받을 땐 일시금

사적연금 선호 변화

퇴직 전에는 저축해 놓은 사적연금 자산을 분할 수령하는 것을 원하지만 실제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개발원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40~59세의 비은퇴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10명 중 9명(90.8%)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의 분할방식으로 수급하기를 희망했다. 이 중 88.9%는 사망시까지 지급받길 원했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 희망자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확정기간 분할수급 방식은 24.8%, 종신 간 분할수급 방식 희망자는 65.5%에 달했다.

사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퇴직연금의 장후 사용처로 '노후생활비 용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85.4%에 달했다. 개인연금 구입이유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자가 80%에 육박했다. 그러나 실제 퇴직연금 수령시에는 지속액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의 97.9%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김형석기자 khs@

갈수록 찬밥신세 인문계

기업 이공계 출신 선호 뚜렷

취업 시장에서 이공계 선호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문계가 강세였던 은행권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공계 출신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면서 인문계 구직자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17일 원서모집을 마감한 우리은행은 공채 공고에 'IT 관련 전공자 및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능통자 우대' 조건을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우리은행은 이력서에 IT 전공자나 기술 능력을 갖춘 구직자를 위한 항목을 따로 마련했다. LG유플러스도 하반기 공채부터 인문계 출신이 주류였던 마케팅·영업 등의 분야에서 이공계 인재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신입사원 원서를 접수받는 삼성그룹에서도 이공계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상반기 신입사원의 약 85%를 이공계 출신으로 선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인문계 출신을 개발자로 양성하는 'S/W 직군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정기 공채에서 이공계 위주로 선발한 지 오래다. 인문계 출신은 수시 채용으로만 결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인문계 전공자와 이공계 전공자 비율은 60 대 40으로 인문계 출신이 많지만 산업 수요는 20 대 80으로 이공계 구직자가 훨씬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인문계 구직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최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 플랜트 부분의 신규 인력을 늘리고 있다. 대기업 주력 계열사들이 대부분 제조업과 전자 화학 업종인 점도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상경계 인력이 담당하던 마케팅, 영업 등의 직무에서도 이공계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기본 업무 능력에 제품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본 소양까지 갖춘 이공계 출신의 효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기자 unique@

연금복권520 제16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3조	393464
		5조	404786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272886
4등	100만원	각조	80195
5등	2만원	각조	492
6등	2000원	각조	43, 16
7등	1000원	각조	0, 1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택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라00208

한화vs교보 생보 2위 자리 놓고 '혈투'

총자산·수입보험료 외형은 한화…당기순이익 교보 우위
인력 구조조정·조직개편 단행 등 경영효율 개선 작업 박차

한화생명(사진 왼쪽)과 교보생명(오른쪽)이 생보업계 2위 자리를 놓고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총자산과 수입보험료 등 외형면에서는 한화생명이 앞서고 있지만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지표 등 내실경영은 교보생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사 모두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경영효율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한화생명의 총 자산은 85조63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268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은 1조4633억원 감소한 77조1078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생명은 이 기간 수입보험료에서도 4조5565억원을 기록해 교보생명(4조2938억원)보다 앞섰다. 수보 기준 시장점유율에서는 한화생명(11.72%)이 교보생명(10.36%)보다 1.36%포인트 앞섰다. 이는 지난해 말 격차(1.23%포인트)보다 소폭 벌어진 수치다.

반면 교보생명은 당기순이익에서 한화생명을 앞질렀다. 상반기 교보생명의 당기순이익은 2756억원으로 한화생명(2052억원)보다 705억원 앞섰다. 지난 1분기(1~3월)에도 교보생명의 당기순이익은 1461억원을 기록해 한화생명(938억원)보다 523억원 많았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에서도 교보생명이 앞서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 6월 말 기준 교보생명의 RBC비율은 전분기 대비 16.6%포인트 상승한 314.9%를 기록했다. 반면 한화생명은 같은 기간 261.4%로 나타났다. 두 업체 모두 권장 비율(150% 이상)과 규제비율(100% 이하)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한화생명의 경우 보험사 전체 평균인 299.5%에는 못미쳤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 RBC비율은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6월 말 기준 생보사 25개 업체 중 교보생명의 RBC비율 순위는 10위, 한화생명은 13위를 기록했다.

생보사 2위 경쟁이 격화되면서 양사는 경영효율 개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5월 300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데 이어 이달 15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전략기획실은 전사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강화됐다. 기존 12본부 50팀은 3부문(영업·지원·투자전략) 7본부 41팀으로 변경됐다. 영업부문은 신상품 기획, 마케팅·채널전략, 고객서비스 등 보험영업 전반을 담당한다. 투자전략부문은 자산운용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다음달 신규 선임될 김연배 한화그룹 비상경영위원장을 필두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사례신을 통한 영업경쟁력 강화 ▲현장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신시장 개척과 자산운영 경쟁력 향상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 3대 중장기 전략목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고객보장 선도 위체를 목표로 비전2015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이에 지난 6월 재직 기간 15년차 이상 직원 480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최근 몇 년간 희망자에 한해 20~30여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해왔지만 올해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송형의기자 kha340@metroseoul.co.kr

농협은행 여신관리 시스템 감사

부실 여신이 급증해 실적 악화에 시달려 온 농협은행이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초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여신관리시스템 전반을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이번 검사에서 대출기준, 대출심사 규정, 본점과 지점의 업무협조 부분을 살펴보고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제재보다 경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의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대출(고정이하여신) 잔액은 3조1277억원, 부실대출(NPL) 비율은 1.9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당기순손실은 각각 612억원과 350을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7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호조로 1조3521억원 당기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부실 확대로 2008년 순익이 330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 기업대출을 늘렸지만 지난해 STX그룹 사태로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 농협은행의 STX그룹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임형씨기자

"인천AG 성화봉송 노사 한마음" 서진원 신한은행장(왼쪽 두번째)이 16일 오후 세종대로에서 진행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을 위해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함께 미니파이터 송가연(맨 오른쪽)으로부터 성화를 인계받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안 가결

가처분 신청·본인소송 관건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소송까지 제기하며 사퇴를 거부했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타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임 회장이 법원에 낸 직무정지 제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 여부가 관건이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회의 끝에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자택을 방문한 일부 이사들의 자진 사퇴 설득에도 임 회장이 거부하자 이사회는 밤 늦게 회의를 속개하고 해임안을 의결, 7대 2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3개월 징계 후에도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의결은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사회에 임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고강도 검사, 검찰에 임 회장 고발 등 당국의 압박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 회장은 당분간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지만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KB금융 이사회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임 회장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임 회장의 직무정지 제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제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이사회의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법원의 판단이 KB금융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형씨기자

은퇴 금융아카데미 개설

IBK연금보험은 연금관련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관련 은퇴 금융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첫 강좌는 오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회의실에서 '행복한 은퇴설계, 풍요로운 노후'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IBK연금보험의 100세금융연구소와 은퇴연금협회가 후원하고 (주)ANF인베스트먼트와 (사)50플러스코리안이 주최한다. 강연자로는 국내 금융노년학 분야 전문가인 한주형 박사 등이 참여한다.

/김형씨기자

'금융 아카데미' 행사

하나은행·외환은행은 1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학 정규 강의 형태로 맞춤형 금융 강의를 하는 '찾아가는 금융 아카데미'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광대학교를 시작으로 10월 광운대학교와 충남대학교, 11월 건양대학교 등 올해 하반기에 4개 대학을 차례로 방문한다.

금감원은 대학생 금융사기 피해방지 요령, 개인정보 관리, 휘금손실 가능 상품의 거래 주의 방안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박미란기자 slvel@

"복잡한 금융상품 쉽게 알려드려요"

만화에 팟캐스트, 랩음악까지…금융투자사 고객친화 마케팅 '눈길'

금융투자회사들이 복잡한 투자상품을 고객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팟캐스트와 랩음악 등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재테크 관련 주제로 토크쇼를 열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랩 가사로 전달하는 식이다.

각종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가 딱딱하고 어려운 금융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주로 활용한다.

증권회사들은 일찌감치 팟캐스트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한 금융정보 서비스에 팔을 걷어부쳤다.

KDB대우증권은 지난 5월 개장한 금융콘텐츠채널인 'FN지니어'의 최근 1개월 방문자 수가 15만 여명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니어는 수지 위주의 딱딱한 재테크와 투자 정보를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과 카툰,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방식으로 전달한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끄는 팟캐스트 형식의 오니오 콘텐츠인 '그 월급에 집이 와?'를 포함, 여러 재테크 이슈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영상도 인기다.

키움증권이 200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장한 온라인 증권방송인 '채널K'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으려는 투자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채널K의 최근 동시접속자 수는 1770명, 일일 접속자 수는 6929명에 달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슈 돌직구'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채널K 스탁킹' 등 인기 프로그램이 집중된 오전 11시 정도에 접속자 수가 몰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다양한 인컴투자에 대한 고객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흑인음악인 랩송 가사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시도를 선보였다.

채권인컴과 주식배당인컴, 멀티애셋인컴 등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서 인컴투자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된 피델리티의 '솔루션과 연장'이란 노래를 보면 "벽가이 벼랑처럼 온갖 매력을 갖춘 사람은 솔루션, 망치처럼 하나밖에 못 하면 그냥 연장이라 부르지", "직구 커브 빠른 공 느린 공, 못 치는 공 없는 국민타자는 솔루션, 이 공 저 공 네 공 내 공 가리는 공 많은 편식쟁이 타자는 연장" 등 상품의 특성을 알리는 내용을 래퍼의 랩으로 전달한다.

피델리티자산운용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그동안 신문 등 인쇄물 광고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방송 광고도 일부 사용됐다"며 "그러나 최근 SNS 등 각종 디지털 채널이 주요 소통 통로로 바뀐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자 이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연구소와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쉽게 전달하는 데 공을 들인다.

금감원은 지난 3월에 인기 영화와 드라마를 패러디한 '만화로 읽는 금융이야기'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금융·보험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 웹툰 등의 공모전을 이달 말까지 열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금융협의회 개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 시중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슈퍼 목요일' 국내 증시 전망은?

시장의 공은 또 다시 외국인에 달렸다

시장에서는 세계 증시를 관망 장세로 이끌어온 대형 이벤트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18일 '슈퍼 목요일' 이후를 주목한다.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제기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가 이번에도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18~19일에 걸쳐 굵직굵직한 글로벌 이벤트 결과가 줄지어 발표된다.

오전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 오후엔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입찰결과가 공개된다. 미국과 유럽의 향후 유동성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19일에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여부에 대한 개표결과가 드러난다.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겠지만 조기 인상의 신호탄을 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 시장의 눈길은 FOMC 성명문 가운데 "인플레 2% 목표치 하회 및 장기 인플레 기대가 안정적이라는 조건에서 FOMC는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현재의 저금리 유지를 예상한다"는 문장에 쏠려 있다.

이번 FOMC에서 이 문장의 '상당기간'이란 표현이 삭제된다면 미국의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로 내년 6월 또는 내년 2~3분기 중으로 공감대가 모아진 상황이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역시 현실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찬성을 근소하게 앞서고, 독립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 목요일은 큰 충격 없이 넘길 경우, 시장의 공은 또 다시 외국인에게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내 증시는 슈퍼 목요일 이후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다시 강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다. 지난달 이후 점차 약해지던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13주 만에 누적 순매도로 돌아섰다.

/김현정기자

외국계 금전 사고 71% 차지

최근 3년간 생보사

최근 3년간 생명보험사의 금전사고액이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ING, PCA, AIA,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가 전체 금액의 7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이 2011년부터 3년간 생보사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업체별로 PCA생명이 31억2600만원(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트라이프가 25억3400만원(9건), ING가 12억4600만원(14건), AIA가 3억5800만원(9건)을 기록했다. 이들 외국계 4개사의 금전사고 총 액수는 107억300만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들 회사 이외에도 이 기간 미래에셋 7건(1억8100만원), KDB 7건(6억5400만원), 교보 5건(7700만원), 한화 4건(2억100만원), 푸르덴셜 4건(2800만원), 에이스 4건(3억4500만원)의 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삼성 3건(3억9800만원), 알리안츠 3건(3억2100만원), 신한 3건(2억5900만원), 동양 1건(5억7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라이나, 농협, 동부, 우리아비바, 카디프, 하나, 흥국, 현대라이프, KB, IBK연금 등 10개 생보사는 이 기간 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는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납부시 모집자 개인 통장에 입금하거나 영수증 없이 현금을 주는 것은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삼성카드, 보안 전문가 성재모 영입

삼성카드는 17일 국내 금융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성재모 상무(사진)를 CISO(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로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

성 상무는 대내외 보안정책 수립, 고객정보보호 강화, IT 보안 시큐 등 IT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CISO로서 전사 보안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앞서 그는 금융보안연구원 정보보안본부 본부장과 (舊)한국정보보호진흥원(現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대응팀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금융 보안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을 펼쳐왔다.

삼성카드는 이번 영입을 통해 IT정보보안 부문에서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선제적인 보안대책 수립을 통해 해킹, 피싱, DDoS 공격 등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금융보안 위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는 정보보안담당 조직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안정책 기획과 고객정보보호 점검, IT 기술 보안 등 금융보안 관련 업무를 일원화, 체계화하고, 고객정보 보호 업무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셀피족을 잡아라' 카메라업계 신제품 잇달아

기능 강화로 시장 성장세 둔화 돌파구 마련

셀피(selfie)족 들을 사로잡기 위해 카메라 업계가 셀피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셀피란 스스로 찍은 자기 자신의 사진을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셀카 라고 표현한다.

지난해 옥스포드사전이 셀피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을 정도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셀피는 본래 스마트폰이 유행시킨 것으로 전 세계 콤팩트 카메라 시장의 성장세를 둔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카메라 업계는 일반 소비자층을 겨냥해 셀피 기능을 특화시킨 제품을 선보이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셀피 역시 사진이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의 사진을 더 편하게 찍길 원하는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캐논이 오는 11월 출시하는 신제품 파워샷 N2 는 셀피 문화를 적극 반영한 초경량 초소형 컴팩트 카메라다.

기존 파워샷 N의 셔터링은 위 아래 방향으로 눌러서 촬영이 가능했던 것에 비하여 파워샷 N2에 탑재된 링 형태의 전방향 촬영 셔터는 어느 방향에서 눌러도 셀피를 찍을 수 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디자인으로 손이 작은 여성들도 편안하게 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다.

니콘도 셀피에 특화된 콤팩트 카메라 쿨픽스 S6900 을 공개했다. 기존 니콘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카메라 스탠드와 전면부 셔터 버튼이 눈길을 끈다. 별도의 삼각대가 없어도 카메라에 장착된 스탠드로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제품을 세울 수 있다. 또 카메라 전면에도 셔터 버튼을 탑재해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셀피를 찍기가 쉽다.

캐논 파워샷 N2(왼쪽)와 올림푸스 PEN E-PL7

콤팩트 카메라뿐만 아니라 보다 고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에도 셀피 바람이 불고 있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는 회전식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공유 기능을 갖춘 미러리스 카메라 NX 미니 와 NX3000 을 출시하며 셀피를 넘어 위피(wefie 단체 촬영) 문화까지 주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림푸스도 이달 초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LCD 화면이 아래로 180도 젖혀지는 펜(PEN) 라인 E-PL7 을 출시했다. LCD를 터치하면 사용자 초점을 맞춘 후 1초 뒤 사진을 찍는 '터치 AF 셔터'와 '셀프 타이머'가 활성화된다. LCD를 아래로 내리기 때문에 화면을 터치할 때 손으로 렌즈를 가리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SNS에 올리는 셀피를 찍을 때 주로 사용하는 사진 필터 기능도 더 강화됐다.

/장병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KT, LTE가입자 1000만 명

서비스 2년 8개월 만에 돌파 쾌거

KT는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래 2년8개월 만이다.

KT는 경쟁사에 비해 한 발 늦게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세계 최단 기간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데 이어 1년2개월 만에 500만 가입자를 달성했다.

이러한 가입자 순항은 올해도 이어져 작년 대비 올해 7월 LTE 가입자가 23% 증가하며 1000만 가입자 달성에 성공했다. 가입자 확대에 따라 LTE 시작 초기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7GB였으나 올해 2분기에는 2.6GB로 5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T는 LTE가입자가 급증한 데 대거 ▲1만 광대역 LTE 기지국 구축을 통한 품질 확보 ▲스펀지 플랜, 완전무한 요금제, 전무후무 멤버십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출시와 혜택 강화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강국현 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KT LTE의 품질과 서비스를 믿고 선택해준 1000만 고객에게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00만 고객 달성을 기념해 17일부터 10일간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 LTE 데이터를 증정하는 '1000만MB를 쏜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

/KT 제공

삼성전자 27인치 커브드 모니터 삼성전자 모델이 17일 서울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27인치 커브드 모니터 'SD590C'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눈에서 화면 끝까지의 거리가 눈에서 측면까지의 거리와 거의 같도록 인체공학적 최적 곡률을 적용해 설계됐다.

/삼성전자 제공

포스코, 인니 제철소 2배로 증설 계획

동남아 수요 동향 파악 내년 상반기 결정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서 가동 중인 종합제철소의 증설 방안을 내년 상반기 구체화한다.

민경준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은 15일(현지시간) "경쟁력 향상과 수출 확대를 위해 추가 현지 투자가 필요하다"며 "제철소 건설 때 인도네시아 측과 합의한 내용에 근거해 내년 6월까지 2단계 투자 논의를 끝내고 증설 방안이 결정되면 그 때부터 2년 안에 착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스틸이 70대 30의 비율로 총 30억 달러를 투자해 자카르타의 서부 찔레곤 지역에 세운 제철소다. 동남아 최초 일관제철소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생산능력은 연간 300만t이다. 여기에 포스코는 2단계로 300만t의 생산 설비를 추가해 총 600만t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했다.

민 법인장은 "인도네시아가 연간 900만t가량의 철강재를 수입하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간에는 무역 관세가 없는 상황에서 크라카타우포스코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600만t을 생산하게 되면 절반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세계 철강산업이 공급 과잉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동남아시장의 수요 공급 동향과 전망을 토대로 생산설비를 늘릴지 증설한다면 언제 어떤 규모로 할지를 내년 상반기 결정하게 된다.

/김은경기자 [illegible]@

www.metroseoul.co.kr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싱가포르 '미스터 피시' 지구촌 풍덩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관상어 업체 CEO 앨범 표지 등 적극 홍보… 글로벌 기업으로

물고기를 키워 때돈을 벌고 있는 싱가포르의 '미스터 피시' 케니 얍 대표. 최근 영국 BBC 방송이 세계 최고의 관상어 수출 업체 '켄후'를 일궈낸 그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

얍 대표는 4형제와 사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사업을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돼지 농장을 운영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농장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싱가포르 정부가 동물 농장을 환경오염 산업으로 지정해서다. 이를 지켜보던 자녀들은 의기투합해 돼지 농장을 물고기 농장으로 바꿨다. '물은 피'를 수혈 받은 돼지 농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재 켄후는 1000여 종의 물고기를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얍 대표의 '은둔 홍보'도 회사를 알리는 데 한몫 했다. 그는 의사 이야기가 실린 잡지 수백 권을 농장의 연못 주변에 세우는가 하면 자서의 표지를 앨범으로 장식해 세간에 화제를 낳았다.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지만 관상어 수출 시장에서는 세계 최고로 꼽힌다. 전 세계 관상어 시장의 20%를 싱가포르가 장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5%를 켄후가 차지하고 있다고 얍 대표는 밝혔다. 그는 시장 점유율을 5년 안에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물고기 농장 운영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켄후에서 가장 먼저 기른 물고기는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담수어였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싱가포르에 소개돼 현지인에게 친숙한 종류다. 대중적인 물고기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하늘이 돕질 않았다. 1987년 평소보다 우기가 길어지면서 담수어를 기르던 야외 연못은 홍수를 넘치게 됐다. 작은 크기의 연못은 빗물에 휩쓸렸고 물고기도 함께 떠내려갔다.

그러나 미스터 피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기업명을 '얍 브라더 물고기 농장'에서 1000개의 호수를 뜻하는 '켄후'로 바꾼 배경이다. 그는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중국 쓰촨성에서 인기 있는 관상어도 들여왔다. 처음에 들여온 4000마리는 모두 죽었다. 소음 등 주위 환경에 민감한 관상어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무턱대고 들여온 것이 화근이었다.

얍 대표는 "떼죽음 당한 물고기를 보면서 다양한 어종을 확보하고 물고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 당시 죽인 관상어 모양으로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물고기가 늘어 수족관이 비좁아지자 예민한 어종의 스트레스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얍 대표는 한정된 공간에 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정화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했다. 깨끗한 물이 빠른 속도로 공급되자 물고기는 좁은 공간에서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번식력도 증가해 얍 대표는 짭짤한 수익을 챙겼다.

켄후는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로 수족관 정화 시스템 등 관련 설비도 수출하고 있다. '물고기 스파'도 운영한다. 싱가포르에서 직접 관상어를 구입하는 고객은 연못에 앉아 '닥터피시'의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닥터피시는 사람의 피부 각질 등을 뜯어먹어 피부 질환을 낫게 해주는 물고기로 유명하다.

美 우주선 사업자에 보잉·스페이스X

3조원 사업 본격 추진

우주비행사가 보잉의 우주 택시 'CST-100' 앞에 앉아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상업용 유인 우주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항공우주국(NASA)은 차세대 유인 우주왕복선 개발을 맡길 사업체로 '보잉'과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러지스(스페이스X)'를 선정했다.

NASA는 "오는 2017년 우주비행사를 태운 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ISS)까지 시험 발사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30억 달러(약 3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거대 항공기업 보잉과 신생 벤처기업 스페이스X가 최종 경합을 벌였지만 NASA는 두 업체를 모두 선택했다. 향후 두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잉은 지난달 7인승 '우주 택시' CST-100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드래곤 V2를 선보였다. NASA 관계자는 보잉은 설계가 매우 안정적이고 스페이스X는 기술 대비 비용이 저렴한 점을 장점으로 꼽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선미기자

애플, 안드로이드 사용자 공략 본격화

'갈아타기 매뉴얼' 공개

애플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앞세워 안드로이드 사용자 공략에 나섰다.

IT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9to5Mac)은 애플이 16일(현지시간) 웹사이트의 사용자 지원 문서 메뉴(support.apple.com/kb/HT6407)에 '이러분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콘텐츠를 옮기세요'라는 가이드를 실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뉴얼에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새로 마련할 경우 메일, 연락처, 캘린더, 사진, 문서 등을 애플의 새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8로 옮기는 방법이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돼 있다.

애플이 이처럼 '갈아타기 매뉴얼'을 내놓은 것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구매 고객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란 예측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고 휴대전화 매입 사이트인 가젤닷컴에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발표 이후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신청이 3배로 증가했다.

◆'애플페이'로 교통카드 불가능

애플이 새로 선보인 모바일 결제서비스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교통카드로 쓰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T전문매체 컬트 오브 맥은 애플이 새로운 신제품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탑재한 NFC(근거리무선통신) 칩을 최소한 1년간 애플 페이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아이폰 6와 6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NFC 기반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된 NFC는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이 이같은 제한을 가한 이유는 구글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구글 월렛' 등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이 아이폰 6·6 플러스, 워치 등의 NFC 기능 제한을 해제한다면 구글 월렛이 애플 단말기의 NFC 기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애플로서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다. /this국경기자 [illegible]

연중무휴 공원 상권, 투자 1순위

신도시·택지지구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 좋아 선호

365일 사람들로 북적, 다양한 축제·문화행사도 많아

조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형부동산인 상가를 찾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대형공원 주변 상권이 투자 1순위로 뜨고 있다. 지구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365일 북적여 고객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당·평촌의 중앙공원, 송도·동탄 센트럴파크 등의 대형공원이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업지와 배후수요를 동시에 갖춘 우량 상권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형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들를 수 있도록 도시 계획 단계서부터 중심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도 많아 주말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곤 한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인근 상가들도 북적이기 마련이다. 평촌 중앙공원 초입에 위치한 1편의점은 간단한 먹은거리와 음료를 구입하려는 줄이 문 밖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 편의점은 제답 체인 중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는 하루 수차례씩 운행되는 유람선과 주말 이면 열리는 바자회, 맥주축제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인근 지킨가게의 경우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 중 매출이 손에 꼽힌다고 전해진다.

대형공원 상권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공원을 끼고 있는 상가의 분양도 활발하다.

반도건설은 10월 초 약 28만㎡ 규모의 중앙공원과 연결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C15블록에 '카림 에비뉴 동탄' 상가를 공급한다. 상가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롯폰기힐즈를 세운 일본의 '모리빌딩'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최신 트렌드에 맞춘 스트리트몰로 조성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최초의 스트리트몰로 인근 1만 2000여 가구의 고정인구를 비롯해 공원을 찾는 유동인구까지 풍부해 벌써부터 분양분위기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7월 공급해 분양을 완료한 '카림 에비뉴 세종'에 성공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의도공원보다 2배 이상 넓은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 마곡지구 보타닉 파크 인근에서는 '마곡 럭스나인' 상가가 분양 중이다. 지역주민의 쉼터와 관광지를 겸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으로 서울 서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위치에 조성돼 집객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는 내년 상반기 전통호텔, 음식점, 문화체험관, 공연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한옥마을이 조성돼 지금보다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은 센트럴파크 건너편에 '센투몰'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도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상가를 공급 중이다. GCF와 인천경제청이 입주한 G타워와 포스코건설 본사가 인접했으며, 인천아트센터와 홈리데이인 송도 호텔와도 가깝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 마크힐스' 전국에서 최근 4년간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 마크힐스. 전용면적 193㎡가 65억원에 실거래 됐으며 3.3㎡당 거래가는 1억1122만원에 달했다. /뉴시스

아파트·주택 장점 동시에

GS건설, 위례자이 '테라스하우스' 도입

위례자이 테라스하우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테라스하우스가 위례신도시에 선보인다.

GS건설은 이달 말 분양하는 '위례자이'에 특화평면인 테라스하우스 [illegible]가구와 펜트하우스 7가구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은 앞서 지난 2012년 분양한 '송파센트럴자이' 84㎡타입에 복층형 테라스하우스를 선보여 최고 [illegible]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위례자이에 선보이는 테라스하우스는 단지 앞쪽으로 흐르는 [illegible]을 바라볼 수 있는 전면 3개동에 배치, 조망 및 채광이 뛰어나다. 각 타입별로 약 20~40㎡의 테라스 공간이 제공되며 ▲121TA 8가구 ▲121TB 4가구 ▲124TA 8가구 ▲124TB 4가구 ▲13[illegible]T 2가구 등 [illegible] 가구가 공급된다.

펜트하우스는 남향으로 배치된 5개동의 최상층인 12~15층에 총 7가구가 마련된다. 전용면적 125㎡와 134㎡형으로 구성되고, 최대 24㎡ 규모의 테라스와 전용 옥상 공간이 마련된다.

김보연 위례자이 분양소장은 "앞서 위례에서 분양한 단지들을 보면 테라스하우스 및 펜트하우스와 같은 특화 평면이 경쟁률과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난다"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누리는 데다 희소가치까지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서울지하철 8호선·분당선 복정역 인근에 마련되며 오는 26일 오픈할 계획이다. 101A와 테라스하우스 121TB 타입의 유닛이 마련된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

/박선옥기자

천장고 높인 '키 높이' 아파트 인기

같은 면적이라도 더 넓어 보이는 곳에 살고 싶은 수요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천장을 높인 '키 높이 아파트'가 인기다. 평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옆으로 넓히는 설계에서 위로 높이는 설계로 진화한 것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본 2.3m보다 적게는 10cm, 많게는 30cm까지 천장을 높인 아파트가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개방감과 공간감이 커져 넓어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높아진 천장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에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천장 높이를 높이는 것은 건축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그러나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위해 높은 천장고를 잇달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미시는 이달 서초구 반포동에서 공급하는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의 천장 높이를 기존 아파트보다 30cm나 더 높은 2.6m로 설계했다. 고급 아파트답게 차별화된 개방감과 높은 일조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분양한 주상복합 '래미안 용산'은 모든 가구의 천장고를 20cm 높인 2.5m로 설계했다. 특히 거실은 최대 2.6m를 적용했다.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자이'도 2.4m로 기존 아파트보다 천장을 10cm를 높였고, 대림산업과 포반건설은 'e편한세상 서산예천'과 '착산 명지 호반베르디움2차' 1층 세대의 천장 높이를 각각 30cm, 20cm 높였다.

/박선옥기자

가을 이사철 전국 4만7천여 가구 입주

입주 물량 지방 집중

9~11월 가을 이사철 입주 물량이 전국 4만7000여 가구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11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88곳 총 4만7302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0가구에 비해 1592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에는 26곳 1만6779가구, 지방에는 62곳 3만5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지방에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입주물량이 12곳 8064가구로 가장 많다. 인천은 6곳 4378가구, 경기는 8곳 4347가구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오는 9월 29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45㎡ 총 3885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서는 '운정신도시롯데캐슬'이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26㎡ 총 1880가구로 구성돼 있다.

/김두희기자 [illegible]

식품업계, 이색 아이디어 제품 속속 출시

뒤집힌 콘아이스크림·쌈 싸먹는 피자·얼려먹는 과자 등 다양

최근 식품업계에 생각의 틀을 깬 아이디어 제품이 속속 출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이스크림콘을 뒤엎어 시선을 사로잡거나 먹는 방식을 색다르게 제안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재미를 더한 제품을 선보이며 차별화를 통해 고객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왼쪽부터) 나뚜루팝 어퍼 3종, 파리바게뜨 마카롱 아이스크림, 피자헛 타코피자, 농심 아이스콘

먼저 나뚜루팝은 최근 아이스크림 컵 형태에 재미요소를 더한 '어퍼 3종'을 출시했다. '어퍼'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에 각각의 재료를 넣어 즐기는 토핑형 아이스크림이다. 일반적인 콘 아이스크림과 정반대로 아이스크림 위에 콘 과자를 얹어 주목을 받고 있다. '망콩 어퍼'는 망고기루를 올려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초코쿠키 어퍼'는 쿠키를 추가해 씹는 식감을 더했다. '블루베리 어퍼'는 셔벗같이 씹히는 블루베리를 넣어 시원함과 새콤한 맛을 강조했다.

파리바게뜨는 맛은 물론 예쁘고 고급스러운 외형의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선보였다. 마카롱은 대표적인 머랭(달걀흰자 거품) 과자의 하나이다. 마카롱 비스킷 2장 사이에 가나슈, 버터크림, 잼 등을 샌드해 달달하고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프랑스의 고급 디저트다.

고급 디저트로만 즐기던 마카롱 속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넣어 차별화했다.

피자헛은 '쌈 싸먹는 피자'라는 콘셉트로 토핑을 올려 피자를 쌈으로 싸먹는 방식을 도입해 기존 피자의 고정관념을 깬 '타코피자'를 내놨다. 이 제품은 멕시칸향 가득한 도우에 별도로 제공되는 양상추와 살사소스를 직접 올려 '쌈 싸먹는' 방식이 특징이다. 육즙이 가득한 포크 카르니타스 토핑과 매콤한 할라피뇨, 바삭한 나쵸 크럼블과 고소한 체더치즈가 어우러져 풍성 담백한 도우를 맛볼 수 있다. 싱싱하고 아삭한 양상추와 매콤한 살사소스를 토핑으로 얹어 싸 먹으면 한 입 가득 아삭 매콤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농심은 얼려 먹는 과자인 '아이스콘'을 출시했다. 스낵과 빙과류의 특성을 결합한 형태로 냉동실에서 20분가량 얼리면 식감이 한층 더 바삭해진다는 콘셉트를 내세워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천연소재 감미료인 자일리톨 성분을 함유해 먹을 때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준다. 과자가 제대로 얼고 나면 과자 봉지에 인쇄된 눈사람의 얼굴이 고글을 쓴 모습으로 변하는 포장재를 사용해 재미를 더했다.

/정혜인기자 jhi@metroseoul.co.kr

美육류수출協, 자라섬 페스티벌 협찬

다양한 美 정통 요리 선봬

미국육류수출협회(한국지사장·양지혜)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의 공식 협찬사로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 행사에는 미국식 정통 바비큐 레스토랑 '빌스트리트'와 미국식 고급 수제 버거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버거비'도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지난해 페스티벌 현장에서 정통 미국식 바비큐 요리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바비큐뿐 아니라 고급 수제 버거 등 더욱 다양한 미국 정통 요리를 선보인다.

미국식 정통 바비큐 레스토랑 '빌스트리트(Beale St. Bar & Dining)'와 미국식 정통 수제 버거 레스토랑 '버거비(burgerB)'와 협업해 페스티벌 기간 수제 버거·풀드포크 샌드위치·BBQ 플레터 등 미국산 육류 요리가 준비된다. 이 외에도 룰렛 게임과 포토 이벤트 등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페스티벌 시작에 앞서 17일부터 23일까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아메리칸 미트 스토리(www.facebook.com/AmericanMeatStory)'와 카카오스토리 '아메리칸 미트 스토리'에서 초대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함께 가고 싶은 친구와 가고 싶은 날짜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티켓 2매를 준다.

/김수정기자 ksj0258

건강 섹시미 걸그룹 'EXID' 17일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모델로 활동중인 걸그룹 EXID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촬영에서 EXID는 눈길을 사로잡는 완벽한 S라인와 섹시하고 건강미 넘치는 릴렉스모으로 주목 받았다. 한편 EXID는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첫 싱글 앨범인 '위아래'를 발표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본더리온 제공

농심, 제품 업그레이드

농심이 자사의 대표 브랜드 신라면에 이어 스낵류까지 리뉴얼을 계속하고 있다. 고객의 욕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농심은 17일 신라면 절반 범면·튀김우동면에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매운맛 콘셉트의 라면 '진짜진짜'를 리뉴얼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또 농심은 지난 5월 꿀꽈배기에 이어 콜팝스낵도 포장 디자인을 전면 수정했다. 하반기에는 새우깡을 비롯한 수미칩·양파링 등 주력제품들도 리뉴얼 할 계획이다. /정혜인기자

"환절기 건강관리, 곰탕으로 챙기세요"

강강술래, 면역력 증진 한우사골곰탕 40% 내려
육포·돈가스 등 가을여행·캠핑 먹거리 파격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일교지가 큰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고객들을 위해 보양식 곰탕 할인행사를 벌인다.

오는 30일까지 쇼핑몰(sull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곰탕 대용량박스(500㎖ 6팩 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 10팩 20인분)는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해당 제품들은 방부제·색소 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며 면역력 증진과 기력 보충에 좋다.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 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며 레토르트 포장을 통해 실온에서도 9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0% 국내산 돼지등심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3세트=2.16㎏=3만2400원)도 40% 할인 판매하며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50g 6봉=2만5800원)도 파격가로 선보인다.

이달 말까지 휴헤어지(sulla.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양요섭, 키 위성 캐스팅 화제작 뮤지컬 '조로' 티켓도 증정한다.

2014년 '조로'는 리부트(시리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 작품으로 화려한 무대와 흥겨운 선율, 스릴 넘치는 검술과 스탠트 액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정혜인기자

패션, 기술과 만나다

슈즈업계, 신소재 신발로 가을 소비자 유혹

패션과 신기술의 만남이 시작됐다. 등산복 등 아웃도어에서 시작된 기능성 트렌드가 패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스타일을 중시하던 신발업체들도 '신소재'에 주목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슈즈 브랜드 크록스는 신소재를 활용한 '랩 컬러라이트 라인'을 내놨다.

자체 개발한 '컬러라이트'는 유연성이 뛰어난 합성 소재로 가죽의 느낌은 나지만 일반 가죽보다 훨씬 부드럽고 가볍다. 특히 다양한 컬러를 보다 선명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클래식한 맞춤 수제화 같은 랩 컬러라이트 라인은 블레 플랫(여성)과 로퍼(여성, 남성) 등 두 가지 스타일로 출시됐다.

아디다스의 '에너지 부스트'는 에너지 리턴을 제공하는 러닝화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수천 개의 에너지 캡슐로 만들어진 부스트 폼이 달릴 때의 충격을 에너지로 전환해 안정감 있는 쿠션감을 준다. 특히 발 중앙의 아치형 토션 시스템은 발 앞뒤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장해 지면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준다.

워커힐레스트의 '엘보우 슈즈'는 플랫 슈즈 스타일로 구두의 격식과 운동화의 편안함을 두루 갖췄다. 이 신발에 적용된 신소재 TPE(Thermoplastic elastomer)는 열을 가하면 유연해지지만 상온에서는 형태가 잡히는 것이 특징이다.

엘보우 슈즈는 마시멜로처럼 가볍고 부드러우며, 신발 내부에 잔물결 모식을 새긴 에어커브 패턴으로 오래 신어도 쾌적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크록스 마케팅팀 관계자는 "최근 슈즈업계가 스타일에 제품력까지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볍고 편한 기능성 신발들이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ssw@metroseoul.co.kr

북유럽 화장품 '루메네' 상륙

아시아 첫 진출국으로 '한국' 결정

북유럽 화장품 브랜드가 내달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핀란드 브랜드 루메네는 지난 16일 성북동에 위치한 핀란드대사관저에서 아시아 최초 론칭 기념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핀란드 대사 부부를 비롯해 북유럽 국가의 대사와 핀란드 본사 임원진이 참석했다.

따삐오(Tapio Paldanius) 루메네 핀란드 본사 대표는 "우리는 핀란드 북극의 자연과 과학을 접목한 화장품을 만든다"며 "한국 뷰티 시장은 막을 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메네는 핀란드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미국, 러시아를 포함 20개국에서 2만 여개의 판매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핀란드 제약회사 오리온파마에서 1948년 분사된 회사로 북극의 자연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킨케어를 비롯해 에이징케어·바디케어 등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선 한국에는 스킨케어 중 3개 라인을 론칭한다.

3개 라인은 '컴플리트 리와인드', '브라이트 나우', '아크틱 하우이' 등이다. 이 중 '컴플리트 리와인드'의 뷰티 오일과 '나이트 크림'이 GS홈쇼핑을 통해 10월 첫 출시된다. 제품 가격은 4만~6만원대로 책정됐다.

루메네는 아시아 시장 첫 진출국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다른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찜'했던 화장품 반값 구매 찬스

올리브영·왓슨스 등 드럭스토어 할인 대전

헬스·뷰티 전문매장들이 환절기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친다. 최대 반값 할인을 적용해 평소 눈여겨 봤던 화장품을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는 기회다.

CJ올리브영은 21일까지 '2014 FALL 세일'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히트상품부터 신제품까지 총 9000여 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에디뷰·메이뷰티·다미어라·식물나라·엘르걸 등은 최대 50%, NYX·콘즈·아크네스 등은 최대 40%, 토레랄·메이블린은 최대 35%가 할인된다.

왓슨스는 가을 맞이 할인 행사에 1만기자 상품을 준비했다.

21일까지 LG생활건강의 수려한·이자녹스·라끄베르·보닌 등은 최대 50%, 닥터자르트·닥터지·케어존 등 더모 코스메틱은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왓슨스 관계자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1만 2000 종류임을 고려하면 매장 상품의 80%를 할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세척력 좋은 베이킹소다, 잘 나가네~

세제시장, 천연 성분 주목… 관련 상품 출시 봄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용품업계에서도 '천연성분'을 활용한 신제품 출시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요리와 청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분말 베이킹소다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소비자 조사기관인 AC닐슨에 따르면 업계추산 연 100억원 규모의 분말 베이킹소다 시장은 올 상반기에 시장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매출액은 1월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알려진 베이킹소다가 요리·청소뿐 아니라 옷에 묻은 얼룩까지 말끔하게 지우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천연유래 성분'이라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킹소다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관련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경은 지난달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함께 처방해 세척력을 높인 것으로 출시 2개월 만에 18만개가 판매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탁세제 시장에서도 베이킹소다는 인기다. LG생활건강은 베이킹소다 성분을 담은 '테크 천연 베이킹소다' 액체세제와 '한 워 베이킹소다 담은 세탁세제'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애경 역시 베이킹소다 성분을 함유한 '리큐 진한겔 베이킹소다 플러스(Plus)'를 출시했다.

애경 관계자는 "베이킹소다의 다양한 기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련 생활용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베이킹소다 시장을 따로 분석할 정도로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관련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아시안게임 응원하고 선물도 받고~

롯데월드, '파이팅! 아시아! SNS 프렌즈 데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오는 19일 시작하는 아시안게임 개막에 맞춰 18일과 19일 이틀간 '파이팅! 아시아! SNS 프렌즈 데이'를 실시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에서 해당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한 후 그 화면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자유이용권을 1만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푸짐한 경품이 증정되는 이벤트도 이어진다.

오는 19일까지 SNS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가 가능하며 총 45명에게 아이패드 에어와 인스탁스 카메라,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등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24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1661-2000

/황재용기자 hsoul38@

메트로신문사는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운영하는 티몬과 당선자의 협조를 얻어 추석 명절을 맞아 번민 명절 그리고 '친정엄마'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작을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연들을 통해 가족애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연관광 떠나볼까~

내달 5일까지 '코리아 인 모션 페스티벌'

난타와 점프, 연극과 뮤지컬 등 우수한 우리 공연을 실속 있는 혜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시작된다.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한국의 참신 공연들을 다양한 할인 가격과 상품으로 만끽할 수 있는 '코리아 인 모션 페스티벌 2014'가 다음 달 5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축제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공연 관람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난타, 점프와 같은 넌버벌 퍼포먼스를 비롯해 연극과 뮤지컬 등 35개 공연사 37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축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진다. 모든 공연이 20~50% 할인되며 공연 관람과 남산타워 전망대, 홍대 클럽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티켓 6종도 특별 판매된다.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무대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야외무대에서도 총 42회에 걸친 공연 쇼케이스가 진행된다. /황재용 기자 hsoul@metroseoul.co.kr

쓰러진 어금니, 와이어로 세워

이대목동병원 전윤식 교수팀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치료를 하는 40~50대의 가장 큰 고민은 고정식 교정 장치인 브래킷이다. 시술 시간이 길고 입안 이물감이 커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대목동병원 교정과 전윤식(사진) 교수팀이 기존 치료의 단점을 극복한 '와이어 교정 치료법'을 선보여 화제다.

보통 어금니 주변의 치아가 빠지면 그 공간으로 어금니가 쓰러져 어금니를 세우기 위한 교정치료가 먼저 실시된다. 또 어금니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접한 치아들을 묶어 버팀목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인접 치아에 부착돼 치아 이동을 위한 철사를 유지하는 장치가 바로 브래킷이다.

하지만 어금니와 그 주변 치아뿐만 아니라 앞니까지 브래킷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40~50대의 중년 환자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겨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 교수팀은 일정한 온도가 되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형상기억합금의 원리와 머리카락 굵기의 가는 와이어를 이용했다.

니켈-티타늄 합금 와이어'를 구부려 환자의 어금니와 주변 치아에 붙이면 입 안 온도에 반응해 구부러진 부분이 천천히 펴지면서 쓰러진 어금니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다. 게다가 머리카락 굵기의 가는 와이어가 치아의 손상과 이물감을 줄이며 치료에 앞서서는 3차원 시뮬레이션이 진행돼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

전 교수는 "와이어 교정 치료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현재 와이어 교정 치료법은 앞니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어 교정 치료법은 미국 유명 치과 교정학회지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최근호에 소개된 바 있다. /황재용 기자

metroentertainment E

"성장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 미니앨범 '할라' 발표한 소녀시대 3인조 유닛 **태티서**

트윙클 에서 볼 수 없었던 성숙한 매력 발산

소녀시대의 3인조 유닛 태티서(태연 티파니 서현)가 돌아왔다. 태티서는 지난 2012년 첫 번째 미니앨범 '트윙클'로 음악 방송 트리플 크라운,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톱5 진입,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대만 음악 차트 1위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약 2년 만에 다시 뭉친 태티서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열고 두 번째 미니 앨범 '할라'를 공개했다.

◆ 소녀시대와 태티서의 차이?

소녀시대는 그룹명 그대로 소녀다움을 앞세운 그룹이었다. 2007년 발표한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는 희망찬 미래를 노래했고 소녀시대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노래였다. 수 많은 걸그룹이 섹시 콘셉트를 지향할 때 소녀시대는 건강하고 풋풋한 이미지를 택했다. 하지만 '할라'를 들고 온 태티서는 소녀티를 벗은 어엿한 아가씨의 모습에 가까웠다.

이날 태티서가 가장 먼저 선보인 무대는 '아드레날린'이었다. 1930년대 찰스턴 스타일이 잘 녹아들어있는 '아드레날린'은 엇박 포의 타악기가 인상적인 댄스곡이다.

이 무대에서 태티서는 그동안 소녀시대에게선 볼 수 없었던 과격한 안무를 소화했다. 다리 찢기 안무로 최상의 유연성을 자아냈던 서현은 "안무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태연은 "'아드레날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트윙클'과 달라진 태티서의 모습을 예고했다.

'트윙클'과 '할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서현은 "'트윙클'이 소녀 감성이라면 '할라'는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희도 전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 보다 더 화려하게

태티서는 소녀시대의 유일한 유닛 그룹이다. 세 멤버는 소녀시대이자 태티서로서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자 했다. 서현의 말대로 '트윙클'이 깜찍한 소녀시대의 연장선이었다면 '할라'는 섹시하고 강인한 느낌이 더해졌다. 지난 13일 정식 음반 발매에 앞서 공개된 수록곡 '내가 니게(Whisper)'에 대해 티파니는 "아늘거 분위기있고 섹시한 음악을 꿋꿋었다. 태티서로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신선했고 팬들도 저희가 성숙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 곡같아서 가장 먼저 공개했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할라'는 빅밴드 브라스 사운드에 태티서의 목소리와 매력이 잘 나타나있는 댄스곡이다. 티파니는 "'트윙클' 뮤직비디오 촬영 때 외상판 7번을 갈아 입었다. 근데 '할라'는 그보다 나 크고 멋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은 "이번에 티파니 언니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 언니가 다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다. 뮤직비디오도 예쁘게 나와 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돈독한 팀워크를 과시했다.

◆ 성장의 아이콘, 태티서

소녀시대의 막내이자 태티서의 리더인 서현은 수록곡 '온리 유'의 노랫말을 직접 쓰며 작사가로 변신했다. '온리 유'는 피아노 선율이 깔게 깔린 마이너 발라드다. 티파니는 "서현이가 부모님과 함께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을 때 알프스 산에서 썼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현은 "이 노래는 여행가서 처음 들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설경을 보니 필기 떠올랐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썼다"고 말해 멤버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번 앨범은 전반적으로 태티서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세 사람은 이미지 변신뿐만 아니라 음악인으로서도 한 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티파니는 "성장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고 수줍게 말했다. 서현 역시 "2년 공백동안 저희가 쌓아 온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태연은 "저희들의 음악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앨범이다. 태티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지은 기자 kangkim@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디자인/김다솔

공효진- 이진욱, 연인에서 동료로

바쁜 스케줄로 소원해져··3개월여 만에 결별

훈남훈녀 커플로 주목 받았던 배우 공효진, 이진욱이 열애 인정 3개월여 만에 결별했다.

공효진·이진욱의 열애 소식은 지난 5월 두 사람이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업계 관계자를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났다. 여기 모델 출신 배우라는 공통점과 패션에 대한 취미를 공유하면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

열애설이 보도됐을 당시 공효진은 평소 쿨한 성격처럼 솔직하게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효진 소속사 측은 "이진욱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진욱 소속사 측도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이후 공효진, 이진욱은 방송을 통해 서로를 언급하며 공개 연애를 이어갔다. 지난 6월 19일에는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공효진이 3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이진욱 소속사 측은 "이진욱 역시 많이 놀랐다. 아마 사고를 가장 먼저 알았을 것이고 가장 많이 걱정했을 것"이라고 전해 두 사람의 연애 전선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열애는 3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7일 공효진과 이진욱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최근 연인에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주는 동료로 남기로 했다"며 결별 사실을 인정했다.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자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스케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효진은 지난 11일 종영한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지해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이진욱은 현재 tvN 월요드라마 '삼총사'에서 소현세자 역으로 출연 중이다. 영화 '시간이탈자' 촬영도 앞두고 있다.

/한제훈기자 sejanin@metroseoul.co.kr

윤상 27년 만에 디지털 싱글

'날 위로하려거든' 신곡 공개

가수 윤상이 17일 디지털 싱글 '날 위로하려거든'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날 위로하려거든'은 윤상이 데뷔 27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디지털 싱글. 지난 2009년 발매한 정규 6집 '그땐 몰랐던 일들' 이후 5년 만에 공개하는 신곡이다.

이번 노래는 일렉트로니카 장르로 발라드 가수 윤상의 색깔보다 새로운 장르에 꾸준히 도전하며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는 그의 노력과 실험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가사는 윤상의 음악 동료 박창학이 썼으며 리듬 트랙은 새로운 음악 파트너 스페이스 카우보이가 맡았다.

윤상은 '이별의 그늘' '한 걸음 더' '가려진 시간 사이로' '사랑이란'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스타 작곡가로 자리 잡았다. 그는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KBS 다큐멘터리 '누들로드', 게임 '아키에이지' 등의 음악 감독으로도 활약했으며 일렉트로니카 유닛 모텟의 멤버로 변신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펼쳤다.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에 출연해 친근한 '상이 점' 캐릭터로 대중과의 거리를 좁혔다. 이번 싱글 발매와 함께 정규 음반 작업을 진행하며 왕성한 음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fanakim@

준케이, 야마삐 앨범에 작곡가로

2PM의 준케이(사진)가 일본 톱 스타 야마시타 토모히사의 새 앨범에 참여했다.

준케이는 다음달 8일 발매될 야마시타의 앨범 '유'에 수록될 '브로디아'를 작곡했다. 발라드로 야마시타가 노랫말을 썼다. 배우 겸 가수인 야마시타는 '야마삐'라는 애칭으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JYJ의 김재중과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다.

준케이는 이 앨범에 앞서 최근 발표한 2PM 정규 4집의 타이틀곡 '미친거 아니야'의 작사·작곡 및 프로듀싱을 맡아 프로듀서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5월 일본에서 발표해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른 솔로 앨범 '러브&헤이트'에서는 전곡을 작사·작곡·프로듀싱했다. 또 다음달 22일 발매될 후배 그룹 갓세븐의 일본 데뷔 싱글의 수록곡 '소 럭키'도 프로듀싱했다.

한편 '미친거 아니야'는 일본에서 어말연에 싱글로 출시됐다.

/유순호기자 suno@

키썸 '경기도의 딸' 됐다

'경기도의 딸'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래퍼 키썸(사진)이 경기도 홍보대사가 됐다.

경기도청은 17일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새롭고 신선한 인물에 가수 키썸이 제격이라 생각했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키썸은 다음달 10일부터 경기도 홍보대사로서 일정을 시작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경기도 평생 교육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4 평생학습 행복송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을 노래할 예정이다.

'2014 평생학습 행복송 공모전'은 평생학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거운 평생학습'이라는 인식을 넓히기 위해 진행 중인 대국민 공모전이다. 대상 수상작은 로고송 음원으로 제작돼 라디오 광고와 경기도 31개 시·군 평생교육 관련 행사에 쓰일 계획이다.

한편 키썸은 지난해 경기 G버스 TV '힌기빡기' 코너를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경기도의 딸' '경기북기녀' '티머니 카드로 키운 딸' 등의 별명을 얻으며 경기도의 유명인사가 됐다.

/김지민기자

SG워너비 김진호 "사람들" 발매

정규 2집 9곡 작사·작곡

SG워너비 김진호가 돌아왔다.

김진호는 17일 두 번째 정규앨범 '사람들'을 발매했다. 앨범에는 더블 타이틀곡인 '사람들'과 '가을이 오면'을 포함해 총 10곡이 수록됐다. 김진호는 9곡을 작사·작곡해 뮤지션으로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타이틀곡인 '사람들'은 어쿠스틱 기타, 드럼과 베이스, 우쿨렐레 연주가 인상적인 곡이다.

김진호는 "평소 수많은 공연을 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희노애락을 같이 느꼈다. 그들의 소소한 일상과 행복들을 접하면서, 영감을 얻어 만든 이번 앨범이 조금이나마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항상 제 노래를 사랑해 주고 함께 소통하는 모든 분께 이 앨범을 바친다"고 전했다.

'사람들' 뮤직비디오에는 재능기부 전국투어 당시 인연이 됐던 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등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뮤직비디오 촬영장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배우 강동원이 간식을 들고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순호기자

고수들의 손맛전쟁

한食대첩2

9월 18일 |목| 밤 8시 50분 첫방송!

'마이 시크릿 호텔'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유인나·진이한·남궁민 삼각 로맨스 속 살인범 윤곽 드러날 예정

삼각 로맨스와 살인 사건이라는 소재를 동시에 담은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이하 '마시크')이 어느덧 극 중반에 접어들었다. 드라마는 7년 전에 이혼한 부부 남상효(유인나)와 구해영(진이한)이 한 호텔에서 새 신랑과 예식 지배인으로 다시 만나 살인사건에 휘말리며 시작됐다.

사랑의 기운이 다시 싹트고 있는 남상효와 구해영 사이엔 호텔 경영이사 조성겸(남궁민)이 있다. 남상효의 남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또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인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연진과 홍종찬 PD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배우 진이한은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CJ E&M 스튜디오 내 세트장에서 열린 공동 인터뷰에서 "유인나씨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전 남궁민씨를 택하기로 결정했다"며 "남남 커플로 가기로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겠다는 진이한의 기지가 발휘된 답변이었다.

그의 말대로 8회까지 방송된 '마시크'의 삼각 로맨스는 다소 코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 남상효를 차지하기 위한 두 남자의 불꽃 튀는 경쟁이 존재한다. 남궁민은 "(진이한과) 만나자마자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다"며 "언젠가 진이한씨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평소보다 좀 더 세게 노려 보더니 저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연기를 워낙 잘 하는 친구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말다툼 하는 장면에선 서로 아이디어도 내면서 진행해 대본보다 다소 코믹하게 전개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두 남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유인나의 대답은 "둘 다 매력적이라 마음이 한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였다. 그는 "제가 만약 남상효라면 정이 많이 든 쪽을 택할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의 이혼 배경이 밝혀지지 않았다. 구해영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다른 큰 잘못을 했다면 가차 없이 조성겸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홍종찬 PD는 "결혼식장 현장에서 시체가 떨어진다. 이건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 생활은 마치 시체가 떨어지는 것만큼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범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까지 극중에 등장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새로운 국면을 맞은 '마시크' 9회는 오는 22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SBS 연말 시상식 'SAF'로

가요·드라마·예능 한자리 "축제의 장으로"

SBS가 연말 시상식을 'SBS 어워즈 페스티벌(SAF)'로 바꾼다.

오는 12월 중순 삼성동 코엑스에서 특정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SAF는 SBS 연말 시상식인 연기대상·연예대상·가요대전을 기반으로 SBS의 모든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다.

가수들의 미니 콘서트, SBS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주요 출연진의 무대 인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축제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 동안 국내 연말 시상식은 "지루하다" "상만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SBS의 이번 시도는 시청자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둔다. 또 천편일률적인 국내 시상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해진기자

박해진 '나쁜 녀석들' 선 수출 후 방송

70억 뷰 사나이…중국 내 입지 '탄탄'

배우 박해진의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이 방송 전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에 수출됐다. 박해진이 출연했던 SBS '별에서 온 그대' '닥터 이방인'에 이어 이룬 성과여서 '나쁜 녀석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나쁜 녀석들' 수출에는 박해진의 역할이 크게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5년 동안 중국에서 꾸준하게 활동하며 입지를 다졌다. 현지에서 70억 뷰의 사나이라고 불리고 있다.

2011년 주연을 맡은 '첸더더의 결혼이야기'로 일주일 만에 2억 7000만 뷰, 2주 만에 15억 뷰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SBS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5대 동영상 사이트 총 20억 뷰, SBS '닥터 이방인'은 3억 뷰를 돌파했다.

박해진은 올해 중국 드라마 '멀리 떨어진 사랑'에 출연했고 내년 방송될 중국 드라마 '남인방2'에 캐스팅됐다. 지난달 롯데 패밀리 콘서트에선 '별에서 온 그대'로 호흡을 맞춘 김수현과 함께 2만 명 아시아 팬과 시간을 보냈다.

'나쁜 녀석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 그들보다 더 악질인 범죄자들이 모여 악을 심판하는 수사 느와르다.

박해진은 작품에서 아이큐 160의 최연소 사이코패스 이정문 역을 맡아 그 동안 보여줬던 부드러운 남자의 이미지를 벗고 연기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4일 첫 방송.

/전효진기자

한예슬, 김수현·김현중과 한 식구

한예슬(사진)이 키이스트와 전속계약하고 본격적인 연기 활동에 나선다.

키이스트 엔터사업총괄 양근환 대표는 "다재다능한 매력에 스타성까지 겸비한 배우 한예슬과 한 식구가 돼 기쁘다"며 "키이스트가 지니고 있는 강점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한예슬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2001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논스톱4(2003)를 시작으로 드라마 '구미호 외전' '환상의 커플' '타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영화 '용의주도 미스신' '티끌모아 로맨스' 등에 출연했다.

한예슬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키이스트는 배용준, 임수정, 김수현, 김현중, 주지훈 등이 소속돼 있다.

/전효진기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영화 '슬로우비디오'의 차태현, '제보자'의 유연석,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조정석, '마담 뺑덕'의 정우성.

가을 스크린 수놓을 '남자들의 변신'

차태현·유연석·조정석·정우성 스크린 맞대결

배우의 변신은 관객에게 늘 즐거움으로 나가온다. 올 가을 극장가는 남자 배우들이 각양각색의 변화를 준비 중이다.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온 남자 배우들의 활약이 스크린을 화려하게 수놓을 전망이다.

차태현은 다음달 2일 개봉하는 영화 '슬로우 비디오'에서 동체시력이라는 특이한 능력을 지닌 캐릭터로 스크린을 찾는다. 극중에서 차태현이 맡은 여장부는 찰나의 순간까지 볼 수 있는 동체시력을 지닌 인물이다. 영화는 여장부가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유쾌한 이미지로 캐릭터가 고정화한 차태현은 '슬로우 비디오'에선 기존과는 또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여장부는 그의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독특한 캐릭터다. 차태현은 "참고할 작품이 없어서 마음가는대로 자유롭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일, 유연석은 같은 날 개봉하는 '제보자'에서 열혈 방송국 PD와 부성에 넘치는 연구원으로 호흡을 맞췄다. '제보자'는 2005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을 다룬 실화 바탕의 영화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스타덤에 오른 유연석의 연기 변신이 돋보인다. 극중에서 유연석은 아픈 딸을 위해 줄기세포 연구의 진실을 제보하는 연구원 심민호를 연기했다. 그는 "'응답하라 1994'와 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다"며 연기 변신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박해일도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PD 윤민철 역으로 장물한 모습을 연기했다.

뮤지컬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는 조정석은 대한민국 보통 남편으로 스크린에 돌아온다. 다음달 8일 개봉하는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결혼 생활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 남편 영민을 연기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영민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특유의 익살스럽고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마담 뺑덕'으로 돌아오는 정우성의 나쁜 남자 변신도 10월 극장가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영화는 효를 다룬 고전 '심청전'을 욕망의 텍스트로 변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우성은 사랑을 저버린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빠진 남자 학규를 연기했다. 그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도전의식이 생겼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비긴 어게인' 입소문 200만 돌파

영화 흥행에 OST도 인기

'원스'의 존 카니 감독이 연출한 음악영화 '비긴 어게인'이 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비긴 어게인'은 개봉 36일째인 16일까지 누적 관객수 196만3877명을 기록했다. '원스'를 뛰어넘어 다양성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3위에 올라섰다. 예매율도 21.0%(17일 오전 10시50분 기준)로 1위를 기록하고 있어 17일안에 200만 돌파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비긴 어게인'은 지난달 13일 185개 스크린에서 다양성 영화로 개봉했다. 첫 주말 관객 6만여 명을 모았다.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상영관을 꾸준히 확대하며 대작들 속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비긴 어게인'의 흥행으로 사운드트랙 음반도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다. 주연 배우인 키이라 나이틀리와 그룹 마룬5의 보컬 애덤 리바인이 부른 노래 등이 네이버 뮤직과 벅스 등 국내 온라인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있다.

'비긴 어게인'은 스타로서의 명성을 잃은 음반 프로듀서와 스타 남자친구를 잃은 싱어송라이터가 뉴욕에서 만나 노래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키이라 나이틀리, 마크 러팔로, 마룬5의 애덤 리바인 등이 출연했다.

/장병호기자

정경호 생애 첫 살인마 도전

"본능적으로 연기" 극찬

배우 정경호(사진)가 오는 10월 개봉을 앞둔 영화 '맨홀'(감독 신재영)로 살인마 캐릭터에 도전한다.

'맨홀'은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 세계 맨홀을 지배하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그 속으로 납치된 자들의 목숨을 건 생존게임을 그린 스릴러 영화. 정경호는 미지의 공간 맨홀을 점악한 남자 수철을 연기했다.

극중 수철은 어둡고 습한 맨홀을 보금자리 삼아 곳곳에 CCTV와 여긴 두시경을 설치해 타깃들을 감시하고 납치한 뒤 감금하는 인물이다. 정경호는 기존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고 냉혹한 모습으로 연기 변신을 감행했다.

정경호는 수철에 대해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사는 인물이기 때문에 바깥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거나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 세상에 수철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영 감독도 "정경호는 수철을 본능적으로 연기했다"고 칭찬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휴대폰, 회화를 품다' 展

화가 서영희가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에서 '휴대폰, 회화를 품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화가 서영희는 디지털 세상에서 휴대폰에 회화를 접목시켜 팝 아트 분위기를 내면서도 또 다른 실용 미술을 추구해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휴대폰 갤럭시 노트로 그린 초상화, 누드 등 인물화를 중심으로 28점의 그림을 선보인다.

크로키처럼 스케치를 하고 컬러를 불어넣어 화려하면서도 리얼한 움직임을 재미있게 표현한 기법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서영희는 "회화와 디지털이 만나 팝아트와는 또 다른 퓨전 미술을 만들어 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휴대폰 회화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미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장병호기자

'바르셀로나 콤비' 축구쇼 결승까지 '쭉~'

이승우 1골 4도움·장결희 2골
AFC U-16 시리아에 7-1 대승

바르셀로나 '콤비' 장결희와 이승우를 앞세운 16세 이하(U-16)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에서 12년 만의 우승을 노리게 됐다.

한국은 17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014 AFC U-16 챔피언십 준결승전에서 2골을 넣은 장결희와 1골 4도움을 기록한 이승우의 활약에 힘입어 7-1로 대승을 거뒀다.

한국은 2008년 대회 이후 8년 만에 결승에 올랐고, 2002년 대회 이후 12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게 됐다. 한국은 20일 오후 8시 결승전을 치른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소속인 이승우의 원맨쇼가 매 경기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경기에서는 또 다른 바르셀로나 소속 선수인 장결희의 진가도 돋보였다. 장결희는 전반 5분 중앙선 부근에서 상대 수비수의 볼을 빼앗아 2명을 제치며 단독 드리블을 한 뒤 페널티 지역 왼쪽 부근에서 또 한 명을 제치며 슛을 날렸다. 공은 골대 위를 맞고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1-0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 들어 골 폭풍을 몰아쳤다. 후반 1분 만에 장결희가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이승우가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켰다. 이승우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다.

2분 뒤에는 장결희가 이승우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왼발 슛으로 추가골을 뽑았다. 한국은 후반 8분 이승우의 크로스를 받은 장재원(울산현대고)이 팀의 네 번째 골을 넣었고, 3분 뒤 박상혁(매탄고)이 또 한 골을 더했다.

이승우는 후반 14분 이상헌(울산현대고)의 골을 도우면서 이날 '어시스트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후반 19분에는 이상민의 헤딩 쐐기골을 어시스트하며 4번째 도움을 올렸다. 이승우는 체력 비축 차원에서 후반 20분 교체됐다.

일본과의 8강전에서 60m 드리블에 이은 득점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이승우는 득점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지능적인 패스까지 과시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로 우뚝 섰다.

시리아는 후반 18분 아나스 알라지의 프리킥 골로 영패를 면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손연재 아시안게임 금빛 예감 ↑

경쟁자 나자렌코바 불참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사진)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은 엘리자베타 나자렌코바(19·우즈베키스탄)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

세계 랭킹 11위인 나자렌코바는 중국의 덩썬웨와 더불어 손연재를 위협할 경쟁자 중 한 명이어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리는 손연재에게는 호재다.

17일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우즈베키스탄의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대표팀 명단에서 나자렌코바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러시아에서 귀화한 나자렌코바가 귀화 선수는 해당 국가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우르만스크에서 수영 선수 출신 아버지와 리듬체조 선수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나자렌코바는 아시안게임을 겨냥해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취득했다.

나자렌코바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화한 이후 첫 대회인 국제체조연맹(FIG) 타슈켄트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8위, 곤봉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근 두 차례의 FIG 월드컵에서는 모두 개인종합 8위를 기록했다. 손연재는 두 대회에서 각각 개인종합 3위와 5위에 올랐다.

/김학철기자 kino2004@

한국, 사우디 꺾고 16강 확정

김승대 골 … 여자축구, 인도에 10-0 대승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인천 아시안게임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7일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0으로 승리했다. 2연승을 거둬 승점 6을 챙긴 한국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이상 3점), 라오스(0점)을 따돌리고 조 선두를 지켰다. 최약체인 라오스와의 3차전에서 승리가 확실시 돼 조 1위를 사실상 굳혔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는 김승대. /뉴시스

한국은 김신욱(울산 현대)과 김승대를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한 4-4-2 전술로 경기를 치렀다. 윤일록(FC서울)과 김영욱(전남 드래곤즈)이 좌우 날개로 공격에 가담했고, 김진수(호펜하임)와 임창우(대전 시티즌)가 좌우 풀백으로 나섰다. 센터백은 장현수(광저우 부리)와 김민혁(사간 도스)이 맡았고, 골문은 김승규(울산)가 지켰다.

한국은 전반 11분 김승대가 사우디아라비아 페널티지역 외곽 왼쪽에서 과감한 중거리슛을 때렸고, 공은 수비수를 맞고 땅에 크게 튀기면서 그대로 골문에 빨려 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친 플레이로 반격에 나섰고, 한국의 핵심 공격수인 김신욱과 윤일록이 전반 19분과 29분 상대와 충돌해 부상을 당했다.

한국은 후반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후반 29분 김영욱이 페널티아크에서 상대의 거친 파울로 얻은 프리킥을 직접 슈팅했으나 볼이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상대의 거친 플레이를 뚫고 한국은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나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옐로카드 4개, 경고누적에 따른 레드카드 1개, 한국보다 두 배 많은 반칙 19개로 경기를 마쳤다.

같은 시간 인천 남동 아시아드럭비경기장에서 열린 여자축구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한국이 인도를 10-0으로 대파했다. 유영아(현대제철)가 4골을 넣고 1도움을 기록했고, 전가을(현대제철)이 3골, 3도움으로 맹활약했다. 한국은 남은 경기와 상관 없이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유순호기자 suno@

정비 들어간 '추추 트레인'

팔꿈치 이어 발목 수술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린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사진)가 발목 수술에 들어간다.

ESPN 댈러스 등 현지 언론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추신수가 18일에 왼쪽 발목 수술을 받는다"며 "뼛어진 연골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신수가 6주에서 8주 후에 러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신수는 앞서 왼쪽 팔꿈치 뼛조각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부상자 명단에 올라 올 시즌을 끝냈다.

추신수는 지난 4월 22일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원정 경기에서 왼쪽 발목을 다쳤고 이후 공격과 수비에 모두 영향을 받았다. 0.314였던 타율은 0.242까지 떨어졌다. 스프링캠프 때부터 추신수를 괴롭힌 팔꿈치가 지난 30일 수술이 성공리에 끝나 연이어 발목 수술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추신수는 텍사스로 이적한 후 첫 시즌인데다 텍사스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자 수술을 시즌이 끝난 후로 미루고 경기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텍사스는 수술 날짜를 앞당겨 재활에 나섰다. 텍사스는 17일 기준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에서 57승 92패를 기록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한편 추신수는 7년간 1억3000만 달러(약 1343억5800만 원)에 텍사스와 계약했다. 첫 시즌 12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2, 13홈런, 40타점을 기록했다.

/김학철기자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17일

서울	0	0	웨스턴 시드니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부드러운 소주